

김성배, 한국외교사연구회 10월 발제문

김영천. “중국 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 연구동향.” 『史叢』 66 (2008)

中國東北地方史學術討論會(1998. 12)

- 동북3성 학자들 중심으로 고구려사, 고조선사의 중국사 귀속 공론화
『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』 (2001. 2) 출간

-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, 1998년
집필 작업 완료

東北工程(2002. 2 ~ 2007. 1)

『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』 (2003) 출간

- 변강사 연구 맥락에서 藩屬理論에 따른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주장

고구려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지배적 입장

- 고구려사가 전적으로 중국사에 귀속(馬大正 등)

- 一史兩用, 역사공유(姜孟山, 孫進己 등)

고구려사 중국사 귀속의 이론적 근거: 統一的多民族國家論

- “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종 인민들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”(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언)

- 건국 초기 白壽彝의 현재 영토 기준 역사상 중국 강역 설정 주장

- 역사상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다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중화민족

조공책봉론을 근거로 한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주장

- 705년 동안의 고구려사에서 고구려와 중원의 관계는 신속과 조공, 우호교류가 주류였고 모순과 전쟁은 잠시에 불과

- 한제국시 대부분 기간 신속, 5호16국시대 활거정권에 참여, 남북조시대 남북조에 조공책봉, 수당기간에도 전쟁은 미미하고 대부분 신속

- 조공책봉은 동아시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한일 학자들에 의해 입증

- 백제, 신라, 왜,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책봉조공을 유독 고구려의 중국사 귀속 근거로 원용되는 것인지 의문

- 남북조시대 양쪽에 조공했다면 양쪽의 지방정권이 되는 것인가? 한은 흉노

의 지방정권이었나?

번속이론에 근거한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주장

- 427년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사 귀속의 맹점
- 기자조선-위만조선-한4군으로 이어지는 역사 흐름을 체계화하여 고구려 전 시기의 판도가 한4군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구려사 전체가 중국사에 귀속 된다고 주장
- 중국 역대왕조가 동북 변강에 두었던 변강통치기구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郡縣, 校尉, 都護府를 통한 소수민족관리에 주목

고구려 - 수·당 전쟁의 성격 문제

- 중앙통일정권과 지방할거정권이 벌이는 국내통일전쟁으로 간주
- 수·당의 침략성 부정: 수·당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화평신복하던 고구려가 태도를 달리하여 변강의 질서와 안정을 파괴하였기 때문

고구려의 북위, 남제에 대한 이중 사대관계의 중요성